

수유실, 키즈룸 갖춘 공유 오피스 문 연다.

Platum

배달의민족 치물리에 자격시험



라이프스타일 코워킹 스페이스 빌딩블럭스(Building Blocks, 대표 김희영)가 21일 서울 강남에 문을 연다.

빌딩블럭스는 총 3개층 360평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독립 공간인 1인실-6인실용 프라이빗 오피스 41개, 고정석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핫데스크 59석을 보유하고 있다.

빌딩블럭스의 인테리어는 홍대의 핫플레이스인 라이즈(RYSE) 호텔 설계를 총괄한 SCAAA에서 전담,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스타트업 종사자의 취향을 고려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의 플라워 슝 수림에서 주요 공간에 꽃과 식물을 배치하는 그린테리어를 담당했다.

국내 첫 라이프스타일 공유 오피스를 표방하는 만큼, 고객들의 업무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과 섬세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제작한 작품 및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쇼룸, 전문 포토그래퍼의 자문하에 완성된 포토 스튜디오, 각종 수공예 작업이 가능한 워크샵, 넉넉한 크기의 스토리지 시설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최상의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 타 오피스 대비 여유로운 크기의 프라이빗 오피스와 완벽한 방음 시설로 고객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특히 여성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증가 추세를 반영, 빌딩블럭스는 국내 최초로 여성 전용 공간을 선보인다. 15층에 위치한 '우먼 온리 존(Women Only Zone)'은 두 번의 보안 과정을 거쳐 입실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동식 비상벨을 별도로 구비하여 여성 고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수유실,

자녀를 맡기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마련된 키즈존(2018년 하반기 오픈 예정) 빌딩블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시설 및 서비스다.

김희영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의 환경이 이전보다 다양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젊은 남성 창업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며 “다양한 업종의 크리에이터들 성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코워킹 스페이스 트렌드를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선전은 어떻게 하드웨어 창업 메카가 되었을까

BOOK JOURNALISM

미래를 사는 도시, 선전



Author

Platum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platum)"은 인터넷, 소셜, 모바일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비즈니스들과 트렌드를 소개하며, 한국의 스타트업 소식을 중국으로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도전과 도약을 후원하는 미디어입니다.